

前に 지어진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要컨대 拙藏『存考』를 통하여 印本『存考』가 刊行되기까지의 經緯 그리고 『存考』와 『金石苑』과의 關係等을 대개 추려 볼 수가 있는 同時에 金石 文庫中心으로 한 當年の 韓中文化交流의 一面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다.

〔註〕劉喜海의 海東金石苑 題辭에 『爰有雲石趙君趙雲石 名寅永字義卿朝 鮮人 嘉慶丙子入都 知餘有 金石癖 於書林中 晤之 出行篋所携東碑數 十種 悉以見餉 嗣後 每遇鴻便 必有金石之寄 竹林繼美雲石小阮 名 秉龜 字景賢 亦有金石之好 道光庚寅春日 充使來都 金石爲寶 修舊好 焉即以 山泉金子 金山泉 名命喜 道光癸未來都與 餘同好 多金石之 贈 棠棣齊 名山川長兄秋史 名正喜者 曾於庚午來都 謁見翁覃溪阮雲 臺諸先生 其經術文名 爲朝鮮一時之冠 曾手拓古碑 寄餘 學富縵緗 誼 敦縵紆 雅慕中華之教 欲觀上國之光……石墨凝香 携來百三十卷 相逢 傾蓋 文字結於奇緣 持贈探囊 金石投夫雅契……惠我以東國琳瑯 英郡 殘卑 別遍彌苔碧辭 鷄林片石 拓以繭紙 云云』이라 하였음 그리고 海 東金石苑의 刊行에 關하여 本考古美術 第二卷 第十號 所載 拙稿 『古揚麟角寺碑』註二에 海東金石苑 後半部四卷이 遺失된 것을 指摘 한 바 있으나 다시 상고해 본 바에 依하면 遺失된 下半部四卷은 近來 에 發見되어 羅振玉氏가 이것에 다시 새로이 蒐輯된 資料를 添加하 여 西紀一九二二年(中華民國十一年)에 海東金石苑八卷 附錄二卷 補遺六卷을 刊行한 일이 있으므로 이에 前註를 補訂함

燕岐蓮花寺의 石像

黃 壽 永

數年來 忠南 燕岐郡을 中心으로 삼은 調査에서 收拾된 碑像 ①은 모 두 西紀七世紀 後半에 이르러 百濟故土에서 造成된 作品으로서 그 中에 는 在銘品 三點이 있어 더욱 注目을 받았다. 이 곳에 紹介하는 兩新例도

第三卷 第五號 通卷二十二號

한 同郡(西面月下里一區一〇四七)에서 着眼된 同系의 遺品으로서 特히 그 中의 하나는 바로 蓮花臺石과 家屋形 天蓋石이 推定되는 在銘品임에 서 더욱 貴重하다. 이들은 모두 距今約五十年前에 現所藏處인 蓮花寺 의 創建主人 故洪文燮氏夫妻에 의하여 同郡西面『권터굴』밭둑에서 發掘 搬移되었다고 할뿐 詳細한 經緯는 알 수가 없었다.

二

(其一) 舟形을 이루는 높이 五·一cm(上端小缺)의 蠟石質의 石像으로서 底面은 菱形이며 兩側面(厚約一〇cm)과 背面에는 彫像이 있다. 下面은 單瓣仰蓮座를 이루었고 前面에는 各各히 群像七尊이 配置되었다. 그 中 通肩의 本尊은 方座, 위에 結跏趺座하였는데 手印으로 보아서 阿彌陀佛 로 推定되며 相好는 全破되었으나 肉髻와 螺髮은 남아 있다. 그 左右에 는 菩薩 羅漢仁王이 各一像씩 蓮花座上에서 直立의 姿勢를 하였다. 本 尊은 舟形의 身光과 大圓의 頭光을 갖고 있는데 蓮花文 四葉紋帶寶珠忍 多文火焰文을 彫飾하였고 그 外緣에는 化佛(推定七軀)과 火焰文이 있다. 其他的 彫刻으로서 는 諸尊蓮座下에 蓮葉과 蹲踞하는 獅子가 있고 本尊 裳懸座下에 博山爐形器가 있다. 側面은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졌는데 上 記獅子의 身部와 三分岐의 꼬리가 새겨진 위에 結跏趺 通肩 禪定印의 如 來座像 一軀가 各各 寶珠形光背를 갖고 있다. 背面의 中央은 隆起되었 고 그 下半部에는 蓮莖사이에 如來獨尊의 座像을 浮刻하였는데 큰 頭身 光을 갖고 있으며 右手는 降魔印을 보이고 있는 것이 注目되었다. 彫飾 의 手法는 精巧刻明하지는 못하며 磨損이 尤甚한데 年代는 碑岩寺石像 보다. 多少降下하는 것으로 推定되며 形態나 細部手法에서 公州 正安面 發見의 三尊像 ②과 곧 比較될 것이다.

三

(其二) 戊寅銘 四面石像(附) 蓮座石 및 屋蓋石 各一) 長方形 佛石 上下에는 突起가 만들어지고 側面은 上促下寬을 이루고 있다. 前面上部에는 方形蓮座위에 正面한 如來座像을 中心으로 그 左右 에 菩薩立像과 그사이에 羅漢立像 各一의 五尊을 配置하였다. 下部에는 蓮池를 波紋으로 表現하고 中央에 蓮花文을 새겼는데 그 左右는 磨滅되



어分明하지 못하다. 頂部에는 本尊의 蓮花紋頭光이 있고 그 左右로는 瓔珞과 化佛이 있다. 背面像은 前面과 大略같은 樣式인데 다만 半跏思惟像을 本尊으로 삼아 方形蓮座위에安置하였고 그 左右에는 本尊을 向하여 跪座하는 各一의 菩薩像을 새겼는데 모두 蓮花座위에서 手香爐를 捧持하고 있다. 半跏像이 上半身은 裸形인데 身側左右를 따라 連珠帶가 보이며 天衣가 길게 左足위에 垂下되어 있다.

다. 相好는 磨損되었으나 蓮花紋 頭光은 三重圓圈을 이루었으며 그 左右에는 瓔珞이 달려 있는 帳幕이 垂下되었으며 各尊間의 空白은 井間을 과서 區劃하고 있다. 下部에 蓮池形과 蓮莖의 分岐形을 彫刻한 것은 前面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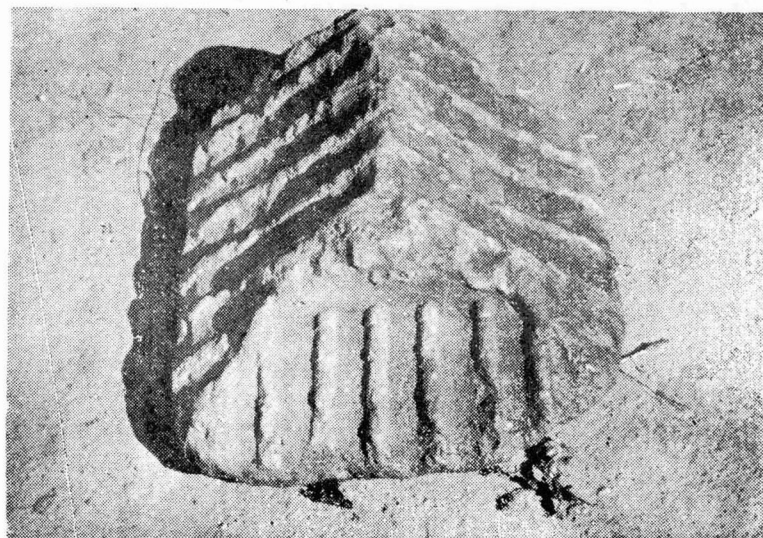
側面은 最下部를 兩分하여 方區內에 卍字紋 欄杆를 새겼고 頂部에는 蓮座위의 如來座像 一軀를 새겼는데 通肩의 禪定인 바 胸面에는 卍字를 刻하였다. 中間은 縱線으로 四區로 나누어 細線의 銘文을 記刻하였는데 다만 右側面의 初行에서 「戊寅年七月七日……」 第一行에서 「其家……」 第三行에서 「一切衆生……」만이 알려졌고 左側面에서는 一字도 判讀할

수 없었다. 이 戊寅年은 既出의 在銘石像(癸酉 또는 己丑) 등에서 推定하여 新羅統初인 文武 王十八年 西紀六七八年으로 比定하고자 한다. 特히 半跏像이 彫刻된 石像에서 年代가 推定되는 遺例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일인데 그 銘文은 앞으로 精査되어야 할 것이다. ⑧

四

方形蓮花座…… 길이 四〇cm 幅 三一·七cm 高一七cm 로서 上面中央에는 깊이 二·九cm의 矩形孔이 파져 있으며 그 前面左右에는 小圓孔과 方孔이 各一씩 鑿려 있어 屋蓋裝置를 위한 支柱와의 關聯이 推定되어 注目된다. 四周에는 複瓣伏蓮과 單瓣仰蓮이 連接되어 있는 바 그 樣式은 厚肉豊滿하며 특히 仰蓮瓣內에는 子葉一線이 細刻되어 있다.

家屋形天蓋…… 이것은 蓮花寺에 附屬되어 있는 民家內에 保管되어 있는 것이나 石像과 同時에 同一場所에서 搬出된 것이라고 한다. 八作形의 瓦葺屋蓋를 模하였는데 一邊幅 三七—四〇cm 높이 一五cm 로서 平圓瓦를 刻하였고 梁城과 下棟과 隅棟도 當代의 樣式을 보이고 있다. 다만 大棟兩端의 鴟尾는 모두 缺失되었으나 側面閣角下에 〇形(懸魚)가 보이는



것은 注目할만하다. 檐裏中央에는 矩形的의 凹處가 마련되어 嵌入을 위한 裝置로 推定되었으며 圓槿가 平行으로 配列되었다. 또 中央의 矩形上面에 圓孔이 두곳에 보임은 上記한 蓮花臺上의 同一한 裝置와 關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家屋形石造遺品은 또한 初有의 遺例인 바 家屋形佛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아서 稀貴한 作品일뿐 아니라 그 樣式系로서 日本 法隆寺에 現存하는 推定 百濟渡來의 玉蟲厨子와도 比較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以上の 三品中 佛石이 蓮花臺 및 屋蓋石과 서로 맞지 않으므로 各異의 結構로 보이기 는 하나 그 原形만은 大略 推定할 수가 있다. 따라서 今後의 原地點에 對한 發掘調査가 期待되는 바이라 하겠으나 既 出品(例컨대 碑岩寺突西銘四面石像)이 이같은 上下의 莊嚴具를 喪失하고 있음에 比하여 多幸이라고 할 것이다. 特히 家屋形 天蓋는 同時에 우리나라의 古代建築史에서 注目되어야 할 遺品으로서 解放後 扶餘邑 佳塔里에서 出土된 金銅塔片과 더불어 三國末 新羅統初의 建築樣式 考察上 重要하다고 할 것이다. (其一)에 比하여 樣式이나 彫法이 매우 類似하나 그보다는 다소 앞서는 造形으로 보고자한다.

註

- ① 拙稿「碑岩寺所藏의 新羅在銘石象」本誌一四、一九六〇、一一、秦弘燮「燕岐의 三尊千佛碑像」本誌二一九、一九六一、九
- ② 拙稿「公州石造佛像의 調査」(『東國史學』第六輯)
- ③ 이같은 碑像遺例로서 背面에 半跏像을 主尊으로 새긴것으로는 日本 京大文學部博物館所藏의 北齊武平三年造三尊石像(小川博士將來品)이 注目되는 바인데 同像의 寫眞과 銘拓을 惠送하여 준 同大學考古學教室에 感謝하는바이다.

新羅土佛坐像

洪 思 俊

一九六二年 六月頃에 慶州 東部 南山 기슭 排盤里 玉蓮庵가는 부처들백

이(俗地名)에서 出土되었다는 土製座像이 某古物商에서 入手되었다. 作品은 當初精巧하게 만들어진 모양이나 風磨 雨洗하여서 거치른 잔모래알이 前後面에 나타나고 있는 天蓋만은 細部の 片貌만이 남아 있다. 佛龕에 安置한 形態를



浮刻한 듯 上部及石側과 坐臺下에 돋아난 輪廓이 若干 남아 있다. 全體의 모양은 舟形에 가까우며 세울 수 있는 연고동색 土製이다. 側面으로 보면 坐佛이 浮刻된, 前面은 直角 後面은 위로가면서 漸次 狹아져 갔다. 佛像은 蓮華臺座에 結伽趺座하였고 身光과 頭光을 細線으로 나타냈고 頭上에 寶蓋가 달려 있다. 佛顔에 比해서 肉髻가 크다. 其他 衣文이나 兩手의 位置는 分明하지 못하다. 慶州 南山은 羅代佛敎道場을 髣髴케 하던 곳으로 佛蹟을 許多히 保有하고 있음에도 이 土製坐佛도 羅代 그 어느 佛敎篤信者의 遺品이 아닐까 생각된다. 總高三·二寸

西郊錢儀

孟 仁 在

謙齋의 서울寫生圖 가운데 제일 흥미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小幅이지만 原蹟의 크기나 所在은 알 수 없다. 四十餘年前 우리나라에 와 있던